

트럼프 외교·안보 정책의 기원에 관한 고찰

Origins of Donald Trump's Grand Strategy

장준갑(Junkab Chang)* | * 전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전북대학교 문화융합아카이빙연구소 연구원 | jkc1@naver.com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트럼프 외교·안보 정책의 종교적 기원
3. 트럼프 외교·안보 정책의 정치적 기원
4. 트럼프 외교·안보 정책의 특징
5. 나가는 말

초 록

본 논문은 트럼프 2.0 시대를 맞아 최근까지 미국의 외교·안보적 규범이라고 여겨졌던 자유주의적 가치 기반의 외교·안보 정책이 실종되고, 예측불허의 거래적·조건적 외교 행태가 트럼프가 정한 국제질서의 상수가 되어 있는 현실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이다. 트럼프의 외교·안보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라는 거래적 관계로 전환하여 가치나 진영보다는 국익을 중시하는 경제적 민족주의와 국수주의적 패권주의 특징을 갖고 있다.

트럼프의 가치 파괴적, 일방적 외교 행태는 트럼프 개인의 성향과 지지자들의 요구에 대한 응답이라는 성격도 있지만,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 정치가 갖고 있는 역사적 특징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미국의 정치 문화는 식민지 시기와 건국 초기부터 칼뱅주의라는 퓨리티니즘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칼뱅주의의 핵심 교리는 구원 예정설인데 그 영향을 받은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신세계인 아메리카 대륙에 인도되어, 결국 인류를 구원할 소명을 완성한다는 선민의식으로 무장했고, 그러한 의식을 정치와 외교의 영역에까지 확대 적용하여 미국은 예외적인 국가이며, 국제사회에서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독단적 행동은 바로 이런 종교적 선민의식이 외교에서 예외주의와 우월주의로 표출된 현상이다. 트럼프 외교·안보 정책에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공화주의의 자연 분화론과 자유주의의 자본주의적 표현인 자유방임주의이다. 자연 분화론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1인, 소수, 다수의 자질을 갖게 되며, 뛰어난 1인과 우수한 소수는 자연 귀족으로서 평범한 다수와 구별되는 존재로서 각각의 그룹 내에서는 평등하지만 그룹끼리는 평등하지 않다는 차별적 평등관을 주장한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은 뛰어난 1인과 같은 존재로서 우월적이고 예외적인 지위를 누리는 것이 공화주의 원리에 맞다는 논리다. 자유방임주의는 개인의 능력 발휘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 진화론의 논리로서 미국 독점 자본주의를 합리화했다. 트럼프의 외교는 미국처럼 뛰어나고 강한 국가가 그렇지 못한 국가를 상대로 규칙과 조건을 정할 수 있다는 논리는 자연 분화론과 자유방임주의와 상통한다. 트럼프의

외교·안보 정책은 이러한 역사적 기원 때문에 국내외적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과거와 같이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중시하는 국제법이나 국제기구의 요구는 무시될 것이고, 미국의 국익을 중심으로 선별적·거래적 예측불허의 행동이 전개될 것이다. 한·미 관계도 과거의 관성인 미국 중심에서 벗어나 우리 국력에 걸맞은 국익 중심의 다자외교로 방향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키워드 : 트럼프 외교·안보 정책, 미국 우선주의, 미국 예외주의, 칼뱅주의, 공화주의 자연 분화론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origins of Donald Trump's grand strategy by analyzing how Trump has destroyed the current global international system which based on the liberal free trade agreements established since the middle of the 20th century. The second chapter of this paper seeks how historical religious background impacted on the Trump's grand strategy in which Trump and his team have emphasized national interests in the policies of America First and Make American Great Again(MAGA). American civil religion, Calvinism, has deeply been rooted in American mind so that in the field of diplomacy Americans think that America has natural rights of exceptionalism among nations because according to the doctrine of predestination of Calvinistic theory Americans were chosen by God in the New World. Another important historical legacies on Trump's destructive worldview were Natural Differentiation of Republicanism and the principle of laissez-faire. The theories noted that it is natural order for human beings to be born unequally. In the international world it should be accepted that powerful nations have more power to control international order in which Trump grand strategy relied on. Due to those historic origins of Trump's grand strategy, it seems not to be flexible according to situations in inside and outside of America. International laws and organs would be ignored by Trump. Korean-American relations should be prepared by close coordination with four powerful nations such as U.S., China, Russia, Japan.

※ Keywords : Trump's Grand Strategy, America First Policy, American Exceptionalism, Calvinism, Natural Differentiation

-
- 이 논문은 2024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논문접수 : 2026.02.26. • 최초심사 : 2026.03.14. • 심사완료 : 2026.03.25.

1. 들어가는 말

21세기 초반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세계 정세를 살펴보면, 제2차 세계대전 전후에 시작된 가치와 진영 중심의 세계관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20세기 말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소련의 해체로 시작된 탈냉전 현상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독보적 우위를 기초로 한 단극체제를 형성하였으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은 이러한 미국이라는 단극체제를 가로막는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패권이 국제사회에서 각국이 항상 대비해야 하는 상수라면, 2009년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중국의 급부상은 트럼프(Donald Trump) 1기 행정부를 거쳐 2025년에 시작된 2기 행정부에서도 계속 국제사회의 변화를 추동하는 강력한 변수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이 두 강대국의 대립과 경쟁 혹은 협력이 어떻게 진화해 가는지 그 추이가 대부분의 국가들의 외교정책 수립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 현상에 대한 트럼프의 대응이 대외정책 노선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일 수밖에 없다. 자유무역이라는 국제적 합의를 무시하는 보호무역 조치를 통하여 통상의 이익을 추구하고, 최근의 베네수엘라 침공에서 볼 수 있듯이 군사력을 동원한 침략 행위를 감행함으로써 미국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외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자본주의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구축했던 자유무역을 근간으로 하는 소위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로부터 스스로 후퇴하면서 글로벌 리더로서의 책임과 역할보다는 미국 우선주의라는 민족주의적이고 현실주의적 노선을 채택하여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트럼프의 외교 노선을 미국의 전통적인 고립주의 노선으로의 회귀로 보는 견해¹⁾도 있고, 미국의 세력권 확보를 위한 팽창주의적 의도의 발현으로 보는 견해²⁾도 있으나, 트럼프는 자신의 대외정책을 ‘원칙있는 현실주의’라고 주장³⁾하였다. 그의 외교 노선이 고립주의든, 팽창주의든, 현실주의든 그 함의는 미국은 더 이상 글로벌 리더로서의 국제적 위상이나 체면에 연연해하지 않고 경제적 이익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노골적인 거래주의 선언으로서 미국의 세계관이 통째로 변화되고 있다는 신호인 것이다. 사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주의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패권국가로서 세계 도처에서 착취와 수탈 등 자국의 이익을 위해 수없이 많은 불법적인 행동을 했지만, 항상 자유·평화·인권 등 고상한 명분을 앞세워 그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정당화해 온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미국이 국내적으로 점점 어려운 경제 환경에 직면하자 그 원인을 외부로 돌리면서 걸치레의 명분마저도 도외시키고 오직 힘만을 앞세운 강대국 특유의 19세기적 세계관을 연출하고 있다.

트럼프의 이러한 비합리적이고 강압적인 정책은 위에서 언급한 어떤 노선에 의한 결정이라기보다 역사적인 맥락에서 볼 때 그 실체를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미국 외교에서 항상 보이지 않는

1) Stewart Patrick, "Trump Has Launched a Second American Revolution. This Time, It's Against the World," *Emissary-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19 March 2025).

2) Peter D. Feaver, "How Trump Will Change the World: The Contours and Consequences of a Second-Term Foreign Policy," *Foreign Affairs* (6 November 2024).

3) National Archives, "President Trump Address the 72nd United States General Assembly" (September 20, 2017).

손처럼 작동했던 미국식 예외주의가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미국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종교적 선민의식이 미국 예외주의의 기원으로 작동하고 있다. 또한 미국 헌법이 기초하고 있는 공화주의 철학의 인간관인 차별적 평등관과 자유주의의 변종인 자유방임주의도 미국 예외주의의 기원으로 작동하고 있다. 현재 트럼프가 보여주고 있는 미국의 힘에 의한 강대국 정치는 그 외형과 강도를 달리할 뿐 항상 세대를 거듭하면서 내려오고 있었다.

본고는 트럼프 외교 노선을 규정하는 미국우선주의와 마가(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정책의 기원을 역사 속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그 특징과 내용을 좀 더 명확히 이해하고자 한다. 혹자는 트럼프의 외교정책은 장사꾼의 행동처럼 이익에만 반응하기 때문에 굳이 학문적 차원의 분석과 평가가 별로 의미가 없다고 평가 절하하기도 한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과 행동에는 그 기원이 존재한다는 역사주의 입장에서 보면, 비록 철학적 기반과 정책적 일관성이 결여된 것처럼 보이는 트럼프의 외교정책이나 노선도 과거의 어떤 현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2. 트럼프 외교·안보 정책의 종교적 기원

“21세기 미국의 가장 큰 사건은 오바마의 당선도 아니고 금융위기도 아니고, 이라크전쟁도 아닙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출현입니다. 그의 행보는 20세기에 시작된 현대 미국의 이미지에 가려 있던 미국의 근원적 보수성을 거칠고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라고 권용립은 그의 저서 『미국의 정치 문명』에서 쓰고 있다. 그는 “현대의 미국 즉 ‘뉴딜(New Deal) 아메리카’에 반기를 든 트럼프가 ... 무엇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간 미국과 서유럽이 일궈온 자유주의 세계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트럼프를 떠받치는 우파 세력과 보수적 백인들은 ... 20세기 중반 이후 진보적 가치와 세계화를 내걸고 자본주의 세계의 맹주를 자임해온 현대의 미국을 본래의 미국으로 되돌려 놓고 싶은 사람들”이며 이것이 “트럼프 현상의 본질”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트럼프 현상은 “일회성 드라마”가 아니며, “뉴딜 시대의 민주당이 주도했던 형식적 평등주의를 청산하고 본래의 미국으로 되돌아가려는 역사적 현상”이며, 21세기의 미국 정치가 한동안 뉴딜 청산파와 뉴딜 수호파의 싸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하고 있다”고 내다봤다.⁴⁾

트럼프를 지지하는 우파 세력과 보수적 백인들은 초기부터 뉴딜 이전까지 미국을 지배했던 주류 세력으로서 메이플라워호의 약속, 독립선언, 필라델피아 제헌의회 등 건국 시절 그들의 조상이 행했던 정치적 행위들을 신성시하면서 미국의 예외성과 특별성을 믿었다는 점에서 깊은 역사적 뿌리를 갖고 있다.

그들이 보기에 미국은 예외적인 국가이며 심지어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새로운 이스라엘이었다. 이러한 신념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미국의 역사·문화·종교적 전통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 미국 예외주의에 대한 비교적 최근의 찬사는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대통령이 미국을 “언덕 위에서 빛나는 도성(the shining city on the hill)”이라고 표현한 것과 마들린 올برا

4) 권용립, 『미국의 정치 문명』 (서울: 삼인, 2019), 7-9.

이트(Madeleine Albright) 국무장관이 “없어서는 안 될 국가(indispensable nation)”라는 묘사에서 잘 나타난다. 레이건의 묘사는 청교도 지도자인 조너던 윈드롭(Jonathan Winthrop)을 상기시키는데 윈드롭은 식민지 정착을 선언하는 데 있어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나와 있는 “언덕 위의 도성(a city upon the hill.)”이라는 예수의 말을 세속적인 의미로 신대륙에 적용한 사람이다. 이러한 미국 예외주의는 링컨(Abraham Lincoln) 대통령이 미국을 “지구상의 마지막 최고의 희망(the last best hope of Earth)”이라고 과대포장했던 것처럼 종교적인 기운을 세속적인 용어로 표현한 미국의 시민 종교였다.⁵⁾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 예외주의의 한 단면은 무자비한 전쟁의 자행에 있었다. 지구상의 모든 곳에서 280번 이상의 군사적 개입과 핵 교착상태, 그리고 29차례에 걸친 해당 국가의 토착민들과의 전쟁을 나열하면서 역사가 스타우트(Harry Stout)는 “전쟁은 미국인들의 국가 생활에 있어서 하나의 일상이다.”라고 선언했다. 예외주의 전통은 전쟁에서 신성한 목적을 찾는 것인데 이것은 “전쟁이라는 수단을 미국이 마땅히 행해야 할 세계에 대한 신성한 소명과 성스러운 권능이라고 자리매김하는 것이다.”⁶⁾ 미국인들은 최근 수십 년 동안 미국은 “자유세계의 지도자”이자 “세계의 유일한 초강대국”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 결과 미국은 지정학과 지역 정치의 조건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는 오만함에 빠져 있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노선은 이러한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매우 극단적인 사례이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보기에 미국은 국제연합의 조약과 결정을 거부할 수 있고, 통상조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경쟁 상대가 없는 군사적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선택하기만 하면 혼자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이러한 오만한 대외정책의 기원인 예외주의는 미국인들의 종교적 심상에서 비롯된 면이 크다. 1620년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로드아일랜드의 플리머스(Plymouth)에 도착한 청교도들은 칼뱅의 교리로 무장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원죄(Original Sin)와 성약(Holy Covenant)을 믿는 장 칼뱅(Jean Calvin)의 교리에 따른 세계관을 갖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칼뱅주의⁷⁾는 구원은 평등하지 않다는 관념에 입각하여 엘리트주의, 위계관념, 선민적 우월의식, 숙명론 등을 그 특징으로 한다.⁸⁾ 그들에게 신대륙으로의 이주는 지상에 천년왕국을 건설하려는 신의 의지를 보여주는 예언적 사건이었으며, 부패하고 타락한 유럽(영국)을 탈출해서 신천지에 새 기독교 공동체를 건설하고 스스로를 구원할 소명을 부여받았다고 믿었다.⁹⁾ 이러한 소명의식은 유럽 본토로부터 수천 마일 떨어진 새로운 변경에 정착하는데 따른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극복할 힘과 비전을 제공했다.

5) Jeffrey D. Sachs, *A New Foreign Polic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8), 1-2.

6) Harry Stout, “Religion, War, and the Meaning of America,” *Religion and American Culture: A Journal of Interpretation* 19, no. 2 (summer 2009), 284; Sachs, *A New Foreign Policy*, 2에서 재인용.

7) 칼뱅주의의 핵심 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은 원죄를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타락은 필연이며, 소명으로서 직업과 노동이 구원의 수단이다. 둘째, 신은 정의롭고 엄격하고 가혹하다. 셋째, 신은 군주와 마찬가지로 군림하는 존재다. 넷째, 영혼 세계에도 계급과 서열이 있다. 다섯째, 개인의 구원 여부는 노력과 상관없이 신의 섭리로 이미 예정되어 있다.

8) Ruth Bloch, *Visionary Republic: Millennial Themes in American Thought, 1756-1800*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xiii.

9) Perry Miller (ed.), *Errand into Wildernes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56), 1-15.

정착 과정에서 백인 정착민들은 기근과 먼 거리, 토착민들의 저항, 유럽 열강들 사이의 전쟁, 그리고 식민지인들과 유럽에 있는 제국 정부 사이의 점증하는 긴장 등에 직면했다. 그럴 때마다 식민지인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위하여 신에게 기도했고 승리할 때마다 신이 새롭게 선택한 자신들을 도와준 것에 대하여 신에게 그 영광을 돌렸다. 17세기에 정착에 성공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18세기와 19세기에는 미대륙을, 20세기에는 세계를 가로질러 뻗어 나갈 준비를 했다. 250년 이상 끊임없는 팽창전쟁과 농장, 공장 그리고 기반시설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미국인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었고 이것을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한 신성함의 증거로 해석했다. 뉴잉글랜드의 개신교 정착민들은 장 칼뱅의 가르침, 즉 “부가 사악함이라기보다 신성함의 일부분이어야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신성함은 내세와 마찬가지로 현생에서의 약속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금과옥조로 여겼다.¹⁰⁾

이런 의미에서 비록 칼뱅주의가 종교적 가르침에 기반한 정신적 유산이지만, 현재의 미국인들에게 현실 정치와 국제정치에서 미국 예외주의와 선민의식을 갖게 하는데 있어서 자유주의나 공화주의 등 정치적 이념 못지않게 큰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공화당과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보수적 백인들의 경우 우월의식과 선민의식은 ‘앵글로색슨의 미국’을 만드는 것이 신의 섭리라는 믿음과 연결되는 강력한 정신적 기반이었다. 19세기 말 미국에서 백인들의 프로테스탄티즘(Protestantism)을 대변했던 조슈아 스트롱(J. Strong)은 “앵글로색슨만이 순수하고 영적인 기독교 정신과 시민적 자유를 대변하기 때문에 전 인류를 앵글로색슨으로 만드는 것이 신의 섭리”라고 주장했다.¹¹⁾ 이러한 종교적 유산이 세대를 거듭해서 상속되면서 미국이 강대국이 된 것은 신의 선택을 받았다는 증거이므로 미국의 선택은 신의 뜻이므로 이를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것은 ‘악’이라는 주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시킨다. 비미국적인 국가나 반미국적인 국가를 지칭할 때 레이건 대통령이 자주 사용했던 ‘악의 제국’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사용한 ‘악의 축’이라는 용어는 바로 그러한 칼뱅주의적 종교 유산이 세속 정치에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트럼프의 외교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종교적 배경을 전제로 할 때 좀 더 명확히 이해될 수 있다.

3. 트럼프 외교·안보 정책의 정치적 기원¹²⁾

삭스(Jeffery D. Sachs)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의 외교정책은 미국 예외주의의 새롭고 저속한 변종이다.”라고 규정했다.¹³⁾ 앞 장에서 언급했듯이 미국 예외주의가 칼뱅주의라는 종교적 유산의 결과임과 동시에 정치적으로는 공화주의의 자연 분화론(Natural Differentiation)과 자유주

10) 미국이 행했던 전쟁과 외교정책에서 종교의 역할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Andrew Preston, *Sword of the Spirit, Shield of Faith* (New York: Random House, 2012)를 참조할 것.

11) Josiah Strong, *Our Country: Its Possible Future and Its Present Crisis* (New York, 1885). 권용립, 『미국의 정치 문명』, 114에서 재인용.

12) 트럼프 외교의 정치적 기원에 관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권용립, 『미국의 정치 문명』, 제5장 미국 정치 문명의 보수성, 147-208과 Jeffrey D. Sachs, “Exceptionalism in the Era of Trump,” *A New Foreign Policy*, 37-41에서 논의된 개념들을 중심으로 논의한 것임을 밝혀둔다.

13) Jeffrey D. Sachs, *A New Foreign Policy*, 37.

의의 사생아인 자유방임주의라는 두 가지 요소가 정치적으로 표출된 결과이다.

먼저 공화주의 자연 분화론과 미국 예외주의와의 연결 고리를 살펴보면, 공화주의 사상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1인, 소수, 다수 중 일원이 될 운명을 갖고 태어난다는 것이다. 즉 어떤 사람은 왕처럼 1인의 자질을, 또 어떤 사람은 자연 귀족으로서 현명하고 공익에 헌신할 뛰어난 소수의 자질을, 나머지는 일반 시민의 자질을 갖고 태어나므로 사회 속에서 자연스럽게 분화한다는 개념이다. 말하자면 자질과 능력이 각기 다른 사람들이 가진 바 능력에 따라 1인, 소수, 다수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는 것이 공화주의 인간관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1인, 소수, 다수가 모두 똑같이 평등할 수 없고, 같은 그룹 내에서는 평등하지만, 타그룹과는 평등할 수 없다는 차별적 평등관 혹은 불평등적 평등관이 공화주의의 자연 분화론이다.¹⁴⁾

그렇다면 1인, 소수의 자연 귀족, 다수의 인민 사이에서 야기될 수 있는 갈등은 어떻게 해소되어야 하는가? 공화주의 철학에 따르면 그러한 갈등은 상호 간의 경의(deference)를 통해서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이 능력과 자질에 따라 사회적으로 분화되는 것은 중력의 법칙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그것을 무시하고 강제로 평등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공화주의에서 말하는 '경의'란 능력이 뛰어난 1인과 소수, 즉 자연 귀족의 지배를 나머지 시민인 다수가 경외심을 갖고 불평 없이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경의'는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복종(obedience)과 구분된다고 보았다. 미국의 정치적 근본 이념을 공화주의라고 주장했던 포콕(J. G. A. Pocock)은 "경의의 본질적 의미는 엘리트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 엘리트의 지도자적 역할을 흔쾌히 인정하는 (……) 것으로 그 자체도 하나의 정치적 행위다."라고 주장했다.¹⁵⁾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도 자연 분화론에 입각하여 미국은 자연 귀족의 이상을 구현하는 나라인 반면, 유럽은 신분 세습의 인위적 귀족(Artificial Aristocrat) 때문에 타락했다고 주장했다.

"(……) 타인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인간관이나 정의관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또 참된 인물에 경의를 표하는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¹⁶⁾

이처럼 인간을 자질과 능력에 따라 구분하는 공화주의의 자연 분화론은 재산, 지위 등 개인의 사회적 노력에 의해 얻은 결과물에 대한 불평등은 평등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보는 차별적 평등관을 갖는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의 평등이 주어진다면 그 결과에 대한 불평등은 정당하다는 논리다. 사회적으로 가난한 자가 생겨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자질과 능력에 따른 노력으로 얻은 결과로 생겨나는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강제적 혹은 절대적 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공화주의의 자연 분화론에 반하는 논리로서 세습 귀족을 인정하는 것 못지않게 사회적으로 해롭다는 것이다.

14) 권용립, 『미국의 정치 문명』, 191.

15) J. G. A. Pocock, "The Classical Theory of Deferenc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81, no. 3 (Jun. 1976), 516-517. 권용립, 『미국의 정치 문명』, 192에서 재인용.

16) Martin Diamond, "Ethics and Politics: The American Way," in R. H. Horwitz (ed.), *Moral Foundation of the American Republic*, 103. 권용립, 『미국의 정치 문명』, 192에서 재인용.

이처럼 미국의 평등관은 기회의 평등을 부정하는 세습 귀족제도 같은 인습적 특권을 거부하지만, 경쟁의 결과로 발생하는 불평등은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공화주의의 자연 분화론에 따른 미국의 차별적 평등관은 제약 없는 자유 경쟁을 평등의 전제 조건으로 여기는 자유방임주의와 그 논리가 일맥상통한다.

자유방임주의는 자유주의로부터 파생된 이념인데, 반국가주의 철학인 자유주의가 국가가 주도하는 평등 정책을 거부하기 때문에 남북전쟁 이후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미국 사회가 빠르게 자본주의 사회로 변화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미국 사회를 사로잡은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자유방임 철학은 다윈의 진화론의 원칙인 적자생존과 동일한 논리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홉스태터(R. Hofstadter)는 이 시대의 미국을 다윈의 나라라고 부르기도 했다.¹⁷⁾ 다윈의 진화론이 기독교의 창조론을 부정하는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나라 미국에서 인기를 끈 이유는 적자생존의 자연법칙이 자본주의의 약육강식의 현실을 합리화시키는 논리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다윈이 자연법칙이라고 주장한 적자생존, 자연도태, 약육강식을 인간 사회에 적용한 사회 진화론은 국가 권력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거부하는 자유주의와 권력을 감시해서 폭정을 막아야 한다는 공화주의의 정치철학과도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즉 사회 진화론은 평등을 위한 국가의 개입을 거부한다는 자유주의, 공화주의 정치철학과 일치한다. 따라서 미국의 정치는 기본적으로 강자가 지배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전통을 갖게 되었다.

이 점을 고려하면 현재 국제사회가 직면한 트럼프 현상은 일시적이거나 일회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 연원이 역사적임을 알 수 있다. 19세기 미국 산업 자본주의를 대변한 예일 대학교의 사회학 교수 윌리엄 섬너(William Graham Sumner)의 주장을 살펴보면 트럼프의 외교적 행태인 약육강식의 논리를 발견할 수 있다.

섬너는 당시 미국 자본주의를 도덕적으로 정당화하려고 시도한 학자였다. 그는 자연계의 생존 법칙을 인간 사회에 적용하여 타고난 자질과 능력의 차이에 따른 결과의 불평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 자유방임주의자 혹은 사회 진화론자였다. 그는 “개인이 차지한 몫이 그 개인의 능력을 보여주는 척도”라고 생각했다. 만일 어떤 계약이 불평등하다고 해도 그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유리한 처지에서 계약을 맺은 자는 적자(敵者)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고, 불리한 계약을 한 자는 부적자(不適者)에게 허용된 몫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사회에서 계약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인 것이다. 섬너는 국가가 법과 정책으로 평등을 강제하는 것은 능력과 자질이 뛰어난 자가 노력을 통해 이룬 것을 빼앗아 부적자인 약자에게 나눠주는 행위로서 반사회적 악탈 행위라고 보았다.¹⁸⁾

“인간의 삶에 따르는 고통은 자연의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 따라서 우리가 어떤 고통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이웃 탓으로 돌릴 수 없다. (……) 현대 국가에서, 특히 어느 나라보다 미국에서 사회는 계약이라는 구조물 위에 서 있고 신분의 중요성은 사라졌다. 그런데 계약은 합리적이고

17) R. Hofstadter, *Social Darwinism in American Thought*, rev. ed. (Boston, MA.: Beacon Press, 1955), 4.

18) R. Jeffrey Lustig, *Corporate Liberalism: The Origins of Modern American Political Theory 1890-1920*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2), 80. 권용립, 『미국의 정치 문명』, 201-202에서 재인용.

(……) 현실적이며 냉엄하다. (……) 계약에 기초한 사회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인간들이 모인 단체이며 (……) 따라서 개개인이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최대의 여지와 기회를 제공한다. 계약에 의해 상호 협동하는 자유로운 인간들이 모인 사회야말로 역사상 존재했던 어떤 사회보다 강한 사회이며 (……) 따라서, 자유로운 나라에서는 누구도 남에게 도움을 청할 권리가 없고, 어느 누구도 타인을 도와야 할 부담을 떠맡지 않는다.”¹⁹⁾

섬너는 미국과 같은 자유로운 계약 사회에서 가난한 부적자를 돕기 위해 유능한 적자의 몫을 강제로 빼앗는 것은 양자 모두에게 손해라고 주장한다. 그는 “여기 한 인간이 있다는 사실만 갖고 다른 사람에게 그의 생존을 책임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²⁰⁾이라고 주장하면서 “기회 균등과 법적 평등이 보장되어 있다면 자유 경쟁의 결과로 발생하는 빈부 격차는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만약 민주주의가 재산의 평등을 뜻하는 체제라면 그런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고, “개개인의 생산 능력과 상공업적 자질(industrial virtue)에 차이가 있는 한 경제의 세계는 공화주의적일 수는 있되 민주주의적일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²¹⁾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차별적 평등관은 20세기 중반 뉴딜 시대에 잠시 도전에 직면했다. 193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지속된 뉴딜 시대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법과 제도를 통해 결과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으로 점철된 시기였다. 소위 뉴딜 리버럴리즘(New Deal Liberalism)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1932년 대통령에 당선된 민주당의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가 시작하였고, 미국 사회는 독점 자본주의를 바꿀 수 있는 대전환의 계기를 맞았다. 뉴딜을 기점으로 미국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복지, 인종 차별 금지, 정부의 시장 개입 등 소위 진보적(liberal) 정책들이 시작되었고, 백인 중심의 건국 초기부터 지속되었던 오리지널 아메리카(Original America)의 모습이 여러 분야에서 완화되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은 대공황을 극복한 이후의 자유주의적 뉴딜 아메리카(Liberal New Deal America)였다.²²⁾

뉴딜 아메리카는 국내적으로는 인종주의 배제, 사회 경제적 약자의 보호 등 따뜻한 자본주의 사회를 지향해 왔고, 대외적으로는 민주주의 수호, 자유무역, 다자주의,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한 위기관리 등 가치 중심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구축 및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자본과 시장의 이익’이라는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구축하면서도 19세기의 식민주의의를 배척하고 약소국의 주권도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유엔을 통한 국제 분쟁 해결이라는 소위 알타 체제를 기본 원칙으로 삼는 국제질서를 유지해 왔다. 말하자면 뉴딜의 국제주의적 발현이었다.

그러나 뉴딜 리버럴리즘이라는 사회적 현상에도 불구하고 미국 남부와 중서부의 백인 사회는 국가 주도의 뉴딜 평등주의에 반감을 품고 있었다. 1960년대 인권법 등 민주당과 연방정부가 밀어붙인 급진적 평등 정책에 반발한 공화당의 배리 골드워터(Barry Goldwater), 그 후 닉슨과 레이건으로

19) 같은 책, 80. 권용립, 『미국의 정치 문명』, 202에서 재인용.

20) 권용립, 『미국의 정치 문명』, 203.

21) R. Hofstadter, *Social Darwinism in American Thought*, 60. 권용립, 『미국의 정치 문명』, 204에서 재인용.

22) 뉴딜 아메리카와 오리지널 아메리카에 대한 개념과 자세한 설명은 권용립, 『미국의 정치 문명』, 7-10을 참조할 것.

이어지는 공화당 보수파의 극우화, 그리고 뉴라이트(New Right)와 네오콘을 거쳐 21세기의 대안 우파로 이어지는 현대 미국 우파의 공통점은 뉴딜의 결과 평등주의에 대한 반감이다. 2016년에 등장한 트럼프 현상도 이러한 미국 보수의 극우화의 결과로서 그 본질은 뉴딜 시대 미국이 주도했던 평등주의 정책에 대한 오리지널 아메리카의 반격이다.²³⁾

공화주의의 자연 분화론과 자유방임주의 또는 사회 진화론에 입각한 미국의 평등관은 20세기와 21세기에도 여전히 미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의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행동은 사회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4. 트럼프 외교·안보 정책의 특징

본 장은 트럼프 1기와 2기의 외교·안보 정책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고 익숙한 세계관에서 얼마나 멀리 벗어나고 있는가에 대하여 논의한다. 뉴딜 아메리카의 사회적 평등주의에 반발한 중하층의 보수적 백인 세력의 지지를 받아 2016년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의 외교·안보 노선은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경제 민족주의와 국수주의로 평가할 수 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로서 미국은 군사적 지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2017년 12월에 발표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은 군사적 지배를 보여주기 위해 ‘압도한다(overmatch)’는 용어를 사용했다.

“미국은 압도적 힘을 유지해야 한다. 즉 적의 성공을 방해할 충분한 규모의 능력과 미국의 젊은이들이 결코 압도적이지 않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도록 확실히 할 능력의 조화를 유지해야 한다. 압도적인 힘은 우리의 외교를 강화시키고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이다. 압도적 군사력을 보유하기 위해 미국은 혁신 역량을 낼 수 있는 능력을 복원해야 하고, 전면전에 대비하여 군대의 작전수행 태세를 복원해야 하며, 일련의 시나리오에도 승리하기 위한 충분한 지속력과 넉넉한 규모로 작전을 할 수 있도록 군대 규모를 키워야 한다.”²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힘의 논리를 앞세운 미국 예외주의의 변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런 의미에서 매우 적절한 평가이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의 근본적인 버팀목은 중국, 러시아, 그리고 다른 적대 국가들에 대하여 군비경쟁에서 막대한 투자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트럼프는 적대국들에 대한 경쟁뿐만 아니라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강대국 정치(power politics)를 실행하기 위해 군비증강을 지속하겠다는 정책을 분명히 하고 있다. 힘에 의한 평화라는 미국이 원하는 국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강력한 군사력의 유지는 트럼프 외교의 기본 전략인 셈이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특징은 첫째 노골적인 민족주의이다. “우리는 우리 시민의 이익을

23) 권용립, 『미국의 정치 문명』, 208.

24)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December 2017,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17/12/NSS-Final-12-18-2017-0905.pdf>.

우선시하고 한 국가로서 우리의 주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트럼프는 NSS 표지글에 명시했다. “역사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지속성은 권력 투쟁이다. 현대에도 다르지 않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정반대되는 세계를 만들고자 한다. 즉 단순히 경쟁적인 세계가 아니라 정반대되는 세계를 만들고자 한다.”고 NSS는 강조한다.²⁵⁾ 적대 세력을 설득하여 공존적 평화체제를 만들기보다는 힘에 기반한 투쟁을 통하여 압도하려는 정책은 냉전 시대의 봉쇄정책을 연상시키면서도 진영과 협력하여 적대 세력을 견제하기보다는 미국 홀로 할 수 있다는 편협한 민족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인종주의이다. 미국 우선주의는 실제로 백인 미국 우선주의(White America First)이다. 트럼프의 “멕시코 강간범”과 “이슬람교도 테러범”이라는 선동적 딱지 붙이기, 백인 지상주의, 아이티나 아프리카 국가들을 포함한 “거지소굴 같은” 국가들로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에 대한 공격, 노르웨이 같은 국가들로부터 더 많은 이민 요청 등 모든 것이 그의 선거 기반인 높고 덜 교육받은 미국 백인들의 인기를 노리는 노골적 인종주의 발상이다.²⁶⁾

세 번째 특징은 경제적 포퓰리즘이다. 사실 포퓰리즘은 특수한 이해관계를 막기 위해 일반인들, 즉 보통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포퓰리즘 자체가 정치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다. 일반 시민들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바람직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트럼프 포퓰리즘의 문제는 지킬 수 없는 지나치게 단순화한 약속을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이나 현실적 준비 없이 추종자들을 선동할 목적으로 발표된다는 것이다.²⁷⁾

트럼프의 경제 포퓰리즘의 특징은 첫째, 전형적인 포퓰리즘과 달리 주로 그의 지지 기반인 노동계급 유권자가 아니라 오히려 부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진정한 포퓰리즘은 실제 흔히 일어나는 경우처럼 부자와 강력한 기업 등 기득권자들에게 세금 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그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트럼프의 세금감면은 자본가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장래 미국의 예산과 물가 상승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면서 적자예산을 증가시킬 것이 분명하다. 트럼프의 경제 포퓰리즘의 또 하나의 특징은 미국의 경제적·재정적 어려움을 외국인들의 탓으로 돌린다. 트럼프는 그의 노동자 계층 지지자들에게 그들의 어려움은 주로 불법 이민자들과 멕시코와 중국 노동자들이 그들의 직업을 빼앗았기 때문에 야기되었다고 말해왔다.²⁸⁾

이러한 트럼프의 주장은 어떠한 경제적 통계나 이론에 근거하지 않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무역이 미국 사회 내부의 빈부 격차를 벌렸는데 그것은 해외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나 나쁜 통상협상 때문이 아니라 미국이 해외로부터 노동집약적인 수입품을 들여오는 대가로 자본 집약적인 상품을 수출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종류의 통상 확대는 부자들과 자본가들에게 큰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점점 경제적 불평등이 심해지는 구조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올바른 대응은 통상의 개방과 확대를 유지하는 한편 가난한 사람들을 희생시켜 부자들을 돕는 트럼프의 정책과 정반대로 부자들의 수입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분배하는 경제정책을 실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포퓰리즘이다.²⁹⁾

25) Ibid.

26) Jeffrey D. Sachs, *A New Foreign Policy*, 38.

27) Jeffrey D. Sachs, *A New Foreign Policy*, 39.

28) Jeffrey D. Sachs, *A New Foreign Policy*, 38-40.

최근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권력은 군산복합체, 월스트리트, 거대 정유 업체, 거대 보건의료 업체 등의 로비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트럼프의 정책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렌즈는 그의 포퓰리즘적인 수사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강력한 기업체 로비의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세금 감면과 반환경적인 조치들은 확실히 거대 정유 업체, 월스트리트, 군산복합체, 거대 보건의료 업체 등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트럼프는 포퓰리즘이라는 미명하에 일반 미국인이 아니라 기업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리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갈수록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포함하여 미국인들 사이에서 상당한 실망감을 잉태할 것이며, 미국의 힘을 약화시켜 국제적인 위상의 하락을 촉진할 것이다.

2025년에 시작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1기 때의 미국 우선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MAGA를 앞세워 민족주의적이고 국수주의적인 외교를 훨씬 더 노골적으로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인들은 왜 미국의 몰락을 가속하고 있는 트럼프를 또다시 선택했을까?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미국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 동안 지속했던 정치적으로는 자유주의와 경제적으로는 자유무역에 기반한 소위 자유주의 가치 기반의 국제질서가 더 이상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겼다. 또 1930년대 이후 결과의 불평등을 꾸준히 개선해 온 뉴딜 아메리카의 형식적 평등주의가 건국 초기부터 강한 미국을 만드는 데 공헌했던 WASP(White, Anglo Saxon, Protestant)의 지배력을 무력화한 결과 미국은 실익도 없이 세계의 보안관 역할만 했을 뿐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미국인들은 주인 없는 미국을 다시 원래의 미국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선동하는 세력에게 투표했다고 볼 수 있다. 즉 미국이 민주주의, 평화, 인권 등 인류적 가치의 실현에 앞장서왔자, 경제적 손해만 봐왔다는 극우적이고 국수주의적인 견해가 미국인들 사이에서 설득력을 얻은 결과 트럼프와 같은 가치 파괴적 인물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트럼프 2기의 외교·안보 정책 중 1기와 다른 점은 중국, 러시아 등 적대 세력에 대한 정책과 동맹에 대한 개념의 변화이다. 1기 때의 NSS에서는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strategic competitor)이자 현상파와 세력(revisionist power)이라고 규정하고 2010년부터 시작된 미중 전략경쟁을 본격화했었다. 그런데 2025년 12월 공개된 2기 행정부의 NSS를 보면 상당히 충격적인 측면이 있다. 우선 전체적인 맥락은 “기존 미국 외교·안보 전략의 실패를 전제로 미국의 국익을 민주주의·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가 아니라 본토 방어와 가시적·경제적 이익 중심으로 재정의하고, 글로벌 공공재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사실상 포기한 채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강대국 경쟁구도를 명확히 제시”하면서, “중국은 체제적·이념적 핵심 위협이 아닌 ‘관리 가능한 경쟁자’로, 러시아는 미국의 직접적 적이 아니라 유럽이 주로 대응해야 할 지역적 위협으로 재규정되며, 유럽에 대해서는 가치가 아닌 조건부·거래적 동맹으로 인식하는 시각”을 확실하게 명시하였다. 특히 유럽에 대해서는 “문명적 소멸(civilization erasure)”에 직면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 트럼프는 유럽 국가들은 자신들을 방어하는 데 일차적 책임을

29) Jeffrey D. Sachs, *A New Foreign Policy*, 40. 트럼프의 경제 포퓰리즘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한 올바른 대응에 대한 논의는 Jeffrey D. Sachs, *Building the New American Econom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7)을 참조할 것.

저야 하므로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5%까지 높이라고 요구하고 있다.³⁰⁾

NSS는 2기 외교·안보 전략의 핵심 정책을 무역, 본토 방어, 인도-태평양 중심성 등 3가지 중점 목표를 기술하고 있다. 트럼프는 무역이 곧 국가안보라는 인식하에 무역 협상의 중요성에 큰 비중을 두고, 관세율 부과 등 무역 조건을 수시로 변경하는 등 미국 예외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본토 방어 전략으로는 서반구(Western Hemisphere)를 핵심 지역으로 설정하고 먼로독트린(Monroe Doctrine) 2.0이라고 불리는 “트럼프 귀결(Trump Corollary)” 개념을 제시했다. 즉 1823년에 최초로 선포된 먼로독트린에 따라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미국의 배타적 영향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서반구를 향후 미국의 본토 방어의 핵심적 전략 지역으로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선언인 것이다. 인도-태평양 중심성 전략에 있어서 북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반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억제’에 대해서는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점이 눈에 띄는데, 이것은 중국에 대해서는 핵심적 위협은 아닐지라도 여전히 견제 대상이자 위협이라는 인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트럼프식 미국 예외주의는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미국을 다시 한 번 위대하게 만들자(Make America Great Again)”는 트럼프 진영의 구호가 미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성공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미국에서조차도 점점 그 영향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트럼프류의 예외주의자들에게 미국은 여전히 경쟁상대가 없고 독보적인 세계 최강국이다. 그러나 미국의 안보와 경제적 수요에 대한 해결책은 외국인들을 공격하거나 군비경쟁을 확대하거나 기업의 세금을 감면하거나 적자예산을 증가시키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이 조만간 드러날 것이다. 미국이 계속 강대국으로서 세계 속에서 그 영향력을 유지하고, 문명적 진전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국제적 협력과 국내에서 교육, 기술, 공학, 환경보호 분야 등에 투자를 진작하고, 엄청난 국방예산을 절감하고 세금 감면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여 사회적 약자들을 보듬는 뉴딜 아메리카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³¹⁾

5. 나가는 말

트럼프 1,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큰 틀에서 보면 미국 우선적 예외주의를 매우 노골적인 형태로 시행함으로써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국제사회가 중요하게 여겨온 규범 기반 사회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 최근의 베네수엘라를 침공하여 현직 대통령인 니콜라스 마두로를 불법적으로 체포하여 미국으로 송환하여 재판하고 있는 행위라든지, 관세율을 아무런 협상이나 근거 없이 수시로 자의적으로 변경한다든지 그린란드나 파나마운하를 미국 영토로 삼겠다고 공언하는 행위들이 이것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가치 파괴적이고 폭력적 현상은 점점 심화될 것이고, 유엔 기구나 비유엔 기구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 협력 요구는 대부분 거절될 것이다.³²⁾ 트럼프의 이러한 거래 중심의 외교 행위는

30) 박병광, 백선우, 장세호, 조은정, 주동진, 최용환 공저,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서(NSS): 세계관 재편과 그 함의,” 국가안보전략 연구원(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INSS) 전략보고서, no. 370 (Jan. 2026).

31) Jeffrey D. Sachs, *A New Foreign Policy*, 41.

32) 트럼프는 2026년 2월 현재 31개의 유엔 기구와 35개의 비유엔 기구에서 탈퇴한 상태이고, 향후 이러한 경향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20세기 중반 이후 식민주의와 제국주의를 청산하고 형식적이거나 평등한 국제질서를 담보했던 유엔 중심의 외교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서 모든 국가가 각자도생의 길을 가도록 강요하는 효과를 가진다.

트럼프 현상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건국 초기부터 미국 사회를 지배했던 칼뱅주의라는 시민 종교와 공화주의와 자유주의라는 정치적 이념이 서로 융합하면서 형성된 독특한 미국적 현상이다. 미국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인류를 구원할 소명을 띤 ‘언덕 위에 세워진 이스라엘’과 같은 존재라는 선민의식, 공화주의적 자연 분화론에 따른 차별적 평등관, 미국의 자본주의적 자유주의인 자유방임주의의 결과로 나타난 적자생존, 자연도태, 약육강식을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는 사회 진화론이 건국 초기부터 미국인들의 인식 속에 유전자처럼 존재하는 역사적 유산이다. 현재 트럼프가 국제사회에서 행하고 있는 미국 예외주의적 외교 행태는 바로 이러한 유산의 발로라고 봐야 한다.

사실 미국이 경제적·군사적으로 적수가 없었던 1970년대 중반까지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의 일부 지역에서는 제국주의적 침략 행태를 보였지만, 미국은 국내외적으로 매우 관대한 강대국인 것처럼 행동했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한 1970년대 중반 이후 막대한 재정 적자로 미국의 달러 패권이 약화되고, 유럽과 일본 등 다수의 경제 주체들이 부상하여 미국의 경제적 패권에 도전하고, 소련과 중국 등 공산주의 권역도 이념보다는 경제적 이권을 중시하는 정책을 펴자 자유 진영을 중심으로 세계 질서를 관장하던 미국의 위상은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다. 탈뉴딜을 외치는 국내의 보수 세력에게 미국의 약화는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 ‘진보적 뉴딜 진보 세력이 미국을 약화시켰다.’는 주장은 정치적 힘을 얻게 되었고, 선거에서 트럼프와 같은 극우 세력이 승리하는 기반이 되었던 것이다. 트럼프를 지지했던 대안 우파는 탈뉴딜과 탈리버럴 인터내셔널리즘을 외치면서 트럼프로 하여금 경제 민족주의와 국수주의 노선을 채택하도록 했고, 트럼프는 파괴적인 관세정책과 패권주의적 외교·안보 정책으로 화답했다.

트럼프는 현재 나토 회원국들에게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미군 주둔 비용의 증액을 압박하고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폐지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는 등 동맹국들과의 관계도 거대 중심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트럼프의 외교·안보 전략은 1차적으로 미국의 핵심 이익인 서반구에 집중하고, 여력이 생기면 유럽, 아시아, 중동 등의 지역에 관여하겠다는 것으로서 지난 70년 동안 지구 구석구석을 관리하려고 했던 개입주의에서 패권적 예외주의는 유지하되 개입의 범위를 조정하는 현실적 독자주의로 그 방향을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권용립 (2019). 미국의 정치 문명. 삼인.

박병광, 백선우, 장세호, 조은정, 주동진, 최용환 (2026).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서(NSS): 세계관 재편과 그 함의 (전략보고서 no. 370). 국가안보전략연구소.

Bloch, Ruth H. (1988). *Visionary Republic: Millennial Themes in American Thought, 1756-1800*. Cambridge University Press.

Feaver, Peter D. (2024, November 6). How Trump Will Change the World: The Contours and Consequences of a Second-Term Foreign Policy. *Foreign Affairs*. <https://www.foreignaffairs.com/united-states/how-trump-will-change-world>

Hofstadter, R. (1955). *Social Darwinism in American Thought* (Rev. ed.). Beacon Press.

Miller, P. (Ed.). (1956). *Errand into the wilderness*. Harvard University Press.

National Archives (2017, September 20). President Trump address the 72nd United States General Assembly. <https://trumpwhitehouse.archives.gov/articles/president-trump-addresses-72nd-united-nations-general-assembly/>

Patrick, Stewart (2025, March 19). Trump has launched a second American revolution. This time, it's against the world. *Emissary—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https://carnegieendowment.org/emissary/2025/03/trump-foreign-policy-second-american-revolution-nato-un>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2017, December).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2017/12/NSS-Final-12-18-2017-0905.pdf>

Preston, Andrew (2012). *Sword of the spirit, shield of faith*. Random House.

Sachs, Jeffrey D. (2018). *A new foreign policy: Beyond American exceptionalism*. Columbia University Press.

Sachs, Jeffrey D. (2017). *Building the New American Economy*. Columbia University Press.

Stout, Harry S. (2009). Review essay: Religion, war, and the meaning of America. *Religion and American Culture: A Journal of Interpretation*, 19(2), 275-289. <https://doi.org/10.1525/rac.2009.19.2.275>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Gweon, Yong-lib (2019). The united States as a Political Civilization. Samin.

Park, Byung-kwang, Paek, Sun-woo, Jang, Se-ho, Cho, Eun-jin, Joo, Dong-Jin & Choi, Yong-hwan (2026, January).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s National Security Strategy: Reconfiguring the U.S. Worldview and Its Implications.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Report, no. 370.